

11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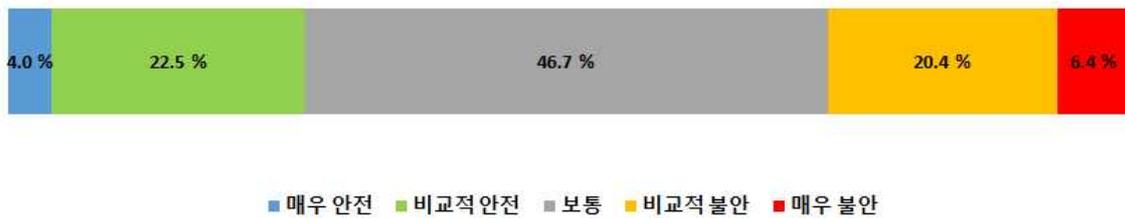
1) 야간활동 안전성

살고 있는 지역의 야간활동의 안전성 「불안(비교적 불안+매우불안)」26.8 %

○ 살고 있는 지역의 야간활동의 안정성에 대해「안전(26.5%)」,「보통(46.7%)」,「불안(26.8%)」순으로 나타남

- 권역별 야간활동이「안전」하다는 응답은 북부권(40.6%), 중부권(25.9%), 서남부권(18.7%) 순으로 나타남
- 남자보다는 여자가「불안」을 더 느끼고, 30대가 가장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40대, 50대, 60대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비율이 높음

<그림 11-1> 야간활동 안전성



<표 11-1> 야간활동 안전성

(단위: %)

	계	안전하다			불안하다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	보통	비교적 불안	매우 불안		
2017년	100.0	26.5	4.0	22.5	46.7	26.8	20.4	6.4
중부권	100.0	25.9	2.7	23.2	52.8	21.3	12.5	8.8
북부권	100.0	40.6	9.0	31.5	49.1	10.4	9.5	0.8
서남부권	100.0	18.7	2.2	16.5	39.6	41.7	34.2	7.5
남자	100.0	27.3	4.3	23.0	46.5	26.2	20.3	5.9
여자	100.0	25.5	3.6	21.9	47.0	27.5	20.5	7.0
15~29세	100.0	25.2	7.0	18.1	43.1	31.8	21.4	10.4
30~39세	100.0	15.9	0.0	15.9	46.4	37.7	22.9	14.7
40~49세	100.0	31.2	3.7	27.5	36.8	32.0	25.0	7.0
50~59세	100.0	30.1	4.0	26.1	45.3	24.7	19.7	5.0
60~69세	100.0	29.6	4.1	25.6	45.0	25.4	21.5	3.9
70세 이상	100.0	23.4	3.8	19.7	56.3	20.2	16.4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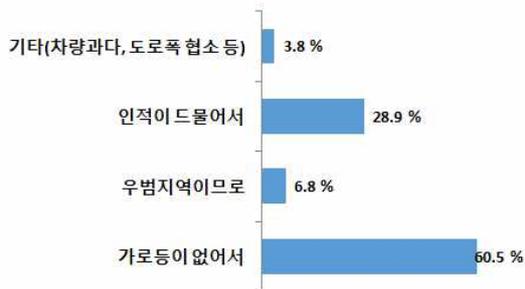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2) 야간활동이 불안한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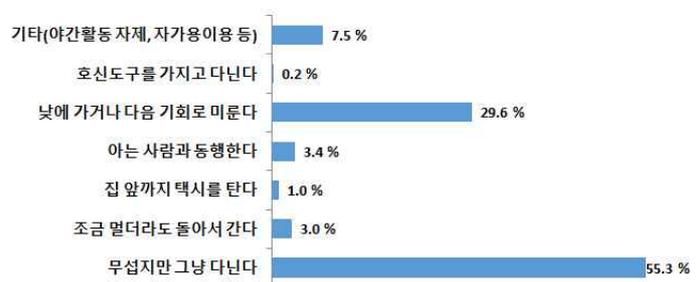
**야간활동이 불안한 원인 「가로등이 없어서(60.5%)」
대처방법은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55.3%)」**

- 야간활동이 불안한 원인으로「가로등이 없어서(60.5%)」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적이 드물어서(28.9%)」,「우범지역이므로(6.8%)」등의 순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 보면, 모두「가로등이 없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남부권은 「우범지역이므로」가 다른 권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남
- 야간활동이 불안할 때 대처행동은「무섭지만 그냥 다닌다」가 55.3%로 가장 많고,「낮에 가거나 다음기회로 미룬다(29.6%)」등의 순으로 나타남
 -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는 남자(62.9%)가 여자(47.0%)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11-2> 야간활동이 불안한 원인



<그림 11-3> 야간활동이 불안할 때 대처방법



<표 11-2> 야간활동이 불안한 원인

(단위: %)

	계	가로등이 없어서	우범지역이므로	인적이 드물어서	기타
2017년	100.0	60.5	6.8	28.9	3.8
중부권	100.0	75.9	0.0	16.1	8.0
북부권	100.0	53.2	0.0	46.8	0.0
서남부권	100.0	54.1	11.1	32.5	2.3
남자	100.0	55.1	7.9	35.7	1.4
여자	100.0	66.4	5.7	21.5	6.4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주.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야간활동 및 야간보행에 대해 불안하다고 응답한 사람

<표 11-3> 야간활동이 불안할 때 대처방법(행동)

(단위: %)

	계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	조금 멀더라도 돌아서 간다	집 앞까지 택시를 탄다	아는 사람과 동행한다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	호신도구를 가지고 다닌다	기타
2017년	100.0	55.3	3.0	1.0	3.4	29.6	0.2	7.5
남자	100.0	62.9	4.1	0.7	3.2	21.2	0.0	7.9
여자	100.0	47.0	1.8	1.4	3.8	38.6	0.4	7.0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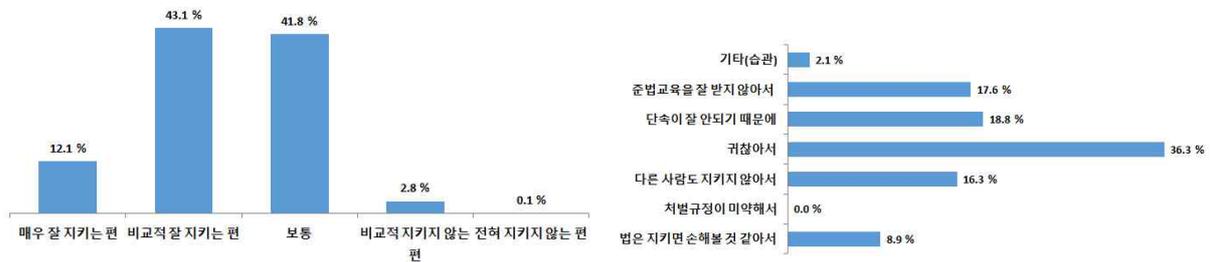
주.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야간활동 및 야간보행에 대해 불안하다고 응답한 사람

3) 기초질서 준수

**기초질서 「지키는 편(55.3%)」,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이유 「귀찮아서(36.3%)」**

-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평소에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지에 대해, 「지키는 편」이 55.3%이고, 「보통(41.8%)」, 「지키지 않는 편(2.9%)」임
-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은 주된 이유는 「귀찮아서」가 36.3%로 가장 많고, 「단속이 잘 안되기 때문에(18.8%)」, 「준법교육을 잘 받지 않아서(17.6%)」, 「다른 사람도 지키지 않아서 (16.3%)」, 「법은 지키면 손해 볼 것 같아서(8.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1-4> 기초질서 준수 및 미준수 이유



<표 11-4> 기초질서 준수 여부

(단위: %)

	계	지키는 편			보통	지키지 않는 편		
		매우 잘 지키는 편	비교적 잘 지키는 편	보통		비교적 지키지 않는 편	전혀 지키지 않는 편	
2017년	100.0	12.1	43.1	41.8	2.9	2.8	0.1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표 11-5>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계	법은 지키면 손해 볼 것 같아서	처벌 규정이 미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지키지 않아서	귀찮아서	단속이 잘 안되기 때문에	준법교육을 잘 받지 않아서	기타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주. 평소에 기초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